

族譜編纂에 즈음하여

族譜는 血統의 系典이요 氏族의 歷史이다 人類와 萬物은 그 根源이 있는지라 東西古今을 莫
論하고 成長由來를 迎求 考察하여 그를 土臺로 보나나는 앞날을 開拓코저함은 人間의 共通된精
神的인 欲求라 하겠도다 그리하여 記錄으로 남기게 된것이 크게는 한나라의 國史요 적게는
家門의 族譜란 名目的 家史일지어다 故로 國史없는 나라와 家史없는 집안이 있을 수 없도다 國
史가 있으므로 賢人들의 精神的인 遺産이 保全됨과 同時에 한 民族으로서의 열이 永久不滅할것
이오 家史가 있으므로서 祖先을 崇慕하는 人倫道德의 바탕아래 一門中의 血統이 世世繼承될 것
이다 그러나 時代의 變遷과 加速된 物質文明의 高潮로 말미암아 民族的인 歷史意識을 비롯 氏
族의인 血統觀念에서 벗어나 차츰 忘本敗倫의 길로 치달지나 앞을까 慨嘆되는 바이다 故로 先人
들의 뜻을 받들어 等閑속에 묻혀가는 族譜를 살려 沈滯一路에 있는 敬祖思想을 일깨우고 孝悌
之心을 培養하고 敦目宗族의 良識을 鼓吹하며 따라서 始祖로부터 自身에 이르기까지의 血統을
올바르게 把握하고 이를 詳細히 밝혀 后孫에게 傳하려 함은 오늘에 사는 우리의 道理와 또한 義
務라고 思料되는바 이번에 우리 집안의 族譜를 整理하기 위하여 西紀一九八七年 丁卯三月二十九
日 刊行한 世譜에 依據 族譜를 編纂 收單을 하여 刊行에 이르러 仁同張氏 姨母의 後裔中 譜學
研究家로 계시는 金玉姬 女史께서 積極的인 協助를 하여 순조로히 마무리 지음은 참으로 커다
란 慶幸이 아닐수 없는지라 筆者는 當序를 가름하오니 우리 家族은 承先하고 敦睦하며 裕后之
役に 遺訓을 되새겨 比他標本의 贊揚之家聲을 慶祝하는 바이다。

壬申(一九九二年) 十二月 十七日

始祖太師公 諱 堅雄 三十八世孫 昌鎭 謹叙

遂安李氏吏部郎德和公派(成川)世譜

一世

始祖李堅雄

高麗太祖朝壁上功臣三重大臣
太師平章事開國公○按東史公
以京山人年二十七翊贊高麗
太祖時泰封王弓裔政亂後梁均
王貞明四年戊寅六月公與洪儒
裴玄慶庚黔弼中崇謙尹莘達卜
智謙諸人推戴
太祖為王丁亥公從
太祖討甄萱之亂後唐路王清泰
二年乙未統合三韓叅壁上功臣
○京山即今星州府

二世

子長碩

惠宗元年甲辰三重大臣門下平
章事一云追封左政丞

三世

子彬

光宗九年戊午文科先是後周人
雙冀隨冊使來
光宗表請為僚屬遂授以文柄樊
勸後學因命知貢舉試以詩賦頌
策賜進士及第東國之科法始此
○公仕至金紫光祿大夫直內史
守司空一云門下侍郎
配貞敬夫人全義李氏父兵部尚
書秀英祖大將軍康曾祖太師平
章事倬

四世

子端

穆宗十一年戊申文科
顯宗二年辛亥拜吏部員外郎八
年丁巳拜司憲中丞丙寅拜御史
大夫丁卯拜中樞院使己巳拜尚
書左僕射兼叅知政事
德宗元年壬申拜內史侍郎同內
史門下平章事甲戌又拜門下平
章事賜推忠佐理功臣上柱國門
下侍郎
靖宗元年乙亥拜門下侍郎同內
史平章事丁丑五月乞致仕凡國
家大事就議
文宗元年丁亥十二月辛丑朔卒
諡文忠公天資莊重清德著名累
典政柄門無私謁銓注公平歷事
四朝盡節奉公移始廢懈朝議甚
憚並見履史
配貞敬夫人仁川李氏父上將軍
成幹祖大將軍訥曾祖上柱國左
僕射郟城伯許謙